

Abstract Type : Poster Exhibition
Abstract Submission No. : F-008404

단일병원 심장-신장 동시이식 수혜자의 응급도 및 대기기간 분석

In Ok Kim¹, Jung Ja Hong¹, shin Hwang¹, Jae Joong Kim², Sung Ho Jung³, Young Hoon Kim⁴

¹Department of Organ Transplantation Center, Asan Medical Center, University of Ulsan, Republic of Korea

²Department of Cardiology, Asan Medical Center, University of Ulsan, Republic of Korea

³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, Asan Medical Center, University of Ulsan, Republic of Korea

⁴Department of Kidney and Pancreas Transplantation, Asan Medical Center, University of Ulsan, Republic of Korea

Introduction: 심장-신장이식은 신부전증을 동반한 말기 심부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,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치료방법이다. 장기이식 치료 및 술기의 발전에 힘입어 1992년 본원에서 국내 최초로 심장-신장의 동시이식이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총 45건이 시행되었고, 그 중 본원은 15건의 심장-신장동시이식을 시행하였다. 본 연구의 목적은 본원에서 시행된 심장-신장 동시이식 수혜자 현황을 파악하여 뇌사자 심장-신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.

Methods: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본원에서 심장-신장동시이식 수술을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및 이식 당시 응급도 및 대기기간, 신장대체 치료요법 시행 유무 및 이식 후 생존 여부 등을 의무기록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KONOS) 자료를 통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

Results: 심장-신장 동시이식은 2005년 3월 31일 본원에서 처음 진행되었고, 2023년까지 1월까지 총 15건이 진행되었다. 성별은 남자 13명, 여자 2명으로, 혈액형은 A형 4명, AB형 2명, B형 2명, O형이 7명이었고, 이식 받을 당시 평균 연령은 남자 52세(30~65세), 여자 38.5세(33~44세)였다. 이식 당시 심장응급도(Status)는 S0(7명), S1(5명), S2(2명), S3(1명)이었다. 이식 당시 상향된 최종 심장응급도에 따른 평균 대기기간은 S0(58일), S1(104일), S2(230일), S3(192일)이었다. 신장은 이식전 1명만 MDRD 30 미만 기준으로 투석 전 상태였고, 14명은 HD, CRRT 적용 중인 투석환자였다. 심장응급도 0에서 이식받은 수혜자 3명은 수술 후 출혈,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, 1명은 8년 8개월차에 패혈증 쇼크, 1명은 10개월차에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고, 그 외 10명은 투석 없이 정상 신장 및 심장기능 범위에서 생존하고 있다.

Conclusion: 심장-신장 동시이식은 응급도 0에서 7명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, 혈액형은 O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 대기기간은 응급도가 높을수록 짧았고, 15명 중 14명이 신장대체 치료요법을 시행 중인 상태에서 심장-신장 동시이식을 받았다. 뇌사자 심장-신장 동시이식의 경우 심장은 응급도에 따라 선정되는 장기이므로 철저한 심장 응급도 관리를 함으로써 심장-신장 동시이식 수혜자로 선정될 기회를 높이며 혈액형 및 응급도별 대기기간 관련 정보를 의료진과 심장-신장 동시이식 대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적절한 시기에 심장-신장 동시이식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중증도가 높은 뇌사자 심장-신장 동시이식 대상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대장기 분배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